

그레이스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8)



가족 사진: 로고스호프 선상 학교 아이들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샬롬! 로고스 호프에서 신 선교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홍수와 태풍 그리고 무더위로 올 여름은 유독 힘든 시간이셨을텐데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동역자 분들과 가정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13일에 오만 무스카트 **Muscat** 항구에 도착하여 오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만은 아랍에미리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중동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도시 전체가 넓고 한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것을 더 고수하고 종교적으로 더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걸프 지역과는 다르게 한국인 선교사 분들이 꽤 계셔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만 남성들이 입는 평상복과 모자



로고스호프 서점을 찾은 오만 현지 가족



목회자들을 위한 선상 선교 컨퍼런스

감사하게도 무스카트에는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게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 선교사는 스리랑카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안경 사역과 교제를 하였고 또 오만에 있는 여러 다국적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한 선상 선교 컨퍼런스의 진행자로 섬겼습니다. 또 선교사는 여성들만을 위한 서점 오픈시간에 여성들에게 문화 교류의 시간을 통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만은 다른 걸프 나라들과는 다르게 현지 무슬림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현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예수님게로 나아오는 오만 현지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참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불구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성경을 탐독 중에, 때로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내 각부에서 함께 섬긴
무스카트 항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4일동안 끊임 없이 험난했던
무스카트에서 살랄라까지의 항해



촉촉한 비로 초록이 무성한 살랄라

지난 7월 24일 무스카트를 떠나 차로 17시간 정도 떨어진 살랄라 **Salalah** 라는 예멘과 가까운 도시로 왔습니다. 몬순 기간이어서 바다가 많이 거칠었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4일동안 배가 많이 흔들려 쉽지않은 항해 였습니다. 살랄라는 특히 7-9월에 중동에선 각광 받는 지역으로 다른 걸프지역에서 볼 수 없는 초록의 잎들을 무성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딱 그 시기에 살랄라에 머무르게 되어 초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도 선교사는 한 스리랑카 분의 섬김으로 두명의 배 사역자와 함께 살랄라 이곳 저곳을 차로 다니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랄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영적으로 어두운 살랄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를 인도한 스리랑카 분의 말씀에 따르면 미신도 섞어 믿는 사람들도 많고 지방이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멘에서 건너오는 난민이 많고 수도와 멀리 떨어져있기에 더욱 보수적이고 닫혀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고스호프는 이제 오만을 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동의 8개국 11개 항구에서 만난 약 50만명의 방문객들을 뒤로하고 동 아프리카로 넘어가 사역을 하게됩니다.



살랄라 지자체장이 로고스호프에
방문 내용이 실린 지역 신문



배를 방문한 인도 여성분들과 교제하며



아이들과 인근 물에서 시간을 보내며



중동에서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수많은 간증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나게 된 형제가 배가 오기 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여 성경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배가 항구에 들어오고 배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나 궁금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 계속 교제하며 이제 형제는 가족을 떠나 수도에서 일을 하며 사역자분과 교제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희를 씨를 뿌리는 도구로, 때로는 열매를 거두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이러한 간증은 저희를 흥분시키고 이 일을 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인재개발부 직원들과의 마지막 팀 사진



인재개발부 강의를 준비하며



오만을 떠나 적도 Equator를 넘어가는 기념 향해 행사 중에

신 선교사는 무스카트를 기점으로 선내 인재개발부 팀장 **People Development** 에서 인사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인사부 부장 **Personnel** 으로 섬기기 위해 현재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부는 선교선의 모든 전반의 인사 관리 업무, 멤버케어, 부서 배치, 방배정, 휴가, 연애 허락, 사역 연장, 징계, 문제 해결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선교사도 이번에 배 가족 코디네이터 **Ship Family Coordinator** 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배 가족은 선내 소그룹으로 기혼한 선교사 부부가 부모가 되고 그 아래 미혼 선교사들이 자녀가 되어 가족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도 선교사는 현재 선내 21개의 배 가족 모임을 관리 운영 및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쁨으로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예수님께로 돌아온 무슬림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서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2. 강박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오만을 비롯한 중동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3. 오만 땅에 있는 외국인들(노동자, 난민)을 위해서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세이셸, 빅토리아

8월 10일 ~ 8월 17일

케냐, 몸바사

8월 21일 ~ 10월 4일

탄자니아, 다레살람

10월 5일 ~ 10월 23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택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